

실버미션스쿨 24일 “개강”… 온라인 강의 시작

뉴저지 실버선교회(대표 양춘길 목사)는 제34기 실버미션스쿨을 24일(월) 오후 8시 개강한다.

미션스쿨은 11월 9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뉴저지실버미션스쿨 제34기의 교육은 뉴저지실버선교사훈련원(원장 김종국 목사)이 관장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뉴저지 실버미션스쿨 제34기 훈련은 줌(Zoom) 화상 통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훈련은 △Missional Pathway(선교는 사명) △Mission Exposure(선교의 이해) △Missional Life(선교의 현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박동건 목사(한국 CRM 대표) 등이 ‘선교의 사명’ 분야의 강의를 맡는다. “조직이 갱신되기 위해서 지도자 개인이 먼저 갱신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갱신은 주 안에서 각 성도가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독특하게 준비하셨고 부르셨는가에 대해 새롭게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시작된다”는 토대 위에서 워크숍을 통하여 선교적 사명과 헌신의 시간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김용철 목사(뉴저지실버선교회 이사장)와 김종국 목사(뉴저지실버선교사 훈련원장) 등이 강의를 담당할 ‘선교의 이해’ 과정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표를 확인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계획이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하며 이 놀라운 훈련 과정은

SMF 바른훈련, 바른선교

뉴저지 34기 실버미션스쿨

8월 24일~11월 9일
매주 월요일 저녁 8~10시

**팬데믹에도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강의는 줌(Zoom)으로 진행됩니다.**



뉴저지 실버선교회는 제34기 실버미션스쿨을 24일(월) 오후 8시 개강한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과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며,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김성남 선교사(과테말라), 한광득 선교사(과테말라), 이준성 선교사(Vision 800 Global 대표) 등이 담당할 ‘선교의 현장’ 과정은 선교 현장에서의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다.

10월 19일(월) 오후 8시에는 조진모 교수(Ph. D, 역사신학 전공)의 강의 ‘청교도 4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신들’이 예정되어 있다.

뉴저지 실버선교사훈련원은 뉴저지 실버선교회 산하 복음주의적 교회 중심의 초교파 선교사 훈련기관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께 헌신 봉사하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실버선교사’로 훈련하고 파송하는 평신도 선교사 양성 전문기관이다.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실버선

교사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동기를 부여하며 영성과 능력을 갖춘 선교사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선교사로서의 필요한 자질과 전략을 익히며 단기선교와 현장실습을 통하여 선교사로서 소명과 헌신을 재확인하도록 훈련함을 목표로 한다. 훈련을 마친 실버선교사 후보생들은 자비량선교사로서 해외 선교현장에 합류토록 주선하며 단기 혹은 중장기 사역을 하도록 후원한다.

뉴저지 실버미션스쿨 제34기는 24일(월) 오후 8시 Zoom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개강한다.

등록에 대한 문의는 훈련원장 김종국 목사(201-694-2855)나 훈련원총무 이흥기 집사(howard.hnc@gmail.com)에게 하면 된다.

뉴저지실버미션스쿨 제34기의 강의 내용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링크 <https://www.bogeumnews.com/pdf/106.pdf>를 클릭해보면 된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